

■ 연구원 소식

○ 4차 역사문학기행 안내(12월 28일)

일 시 : 2019년 12월 28일(토) 09시~16시

장 소 : 순창군 쌍치면 피노리(전봉준 피체지)

내 용 : 서울로 가는 전봉준과 만나는 순창 피노리

대 상 : 회원 및 시민 30명

참가비 : 20세 이상 1만원

2019년 4차 역사문학기행이 오는 12월 28일(토)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시인 안도현의 작품 "서울로 가는 전봉준"과 만나기 위해 나서는 길입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은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으로 서정적이며 서사적인 느낌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조화를 이루고 굴곡진 우리 역사를 詩化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1894년 12월 2일 순창군 피노리에서 체포당한 후 12월 9일 서울로 압송당한 전봉준 장군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근처에 자리한 회문산과 가인 김병로 생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은 12월 20일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 4차 역사문화기행 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09:00~10:00	전주대학교 -> 가인 김병로 생가 이동	순창군 복흥면 하리 519
10:30~11:00	전봉준 장군 피체지 이동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276
12:00~13:30	점심식사	
13:30~16:00	회문산 역사관 이동 및 관람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 3-1
16:00~17:00	전주대학교 이동	

■ 역사 속의 오늘

99.92%의 득표율 (1972년 12월 23일)

1972년 10월 17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키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비상국무회의 설치 등의 비상조치를 감행했다. 정부가 발표한 4개항의 비상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72년 10월 17일 하오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 ②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 하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 ③ 비상국무회의는 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 ④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1972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공고되고 한 달간의 공고기간 동안 정부는 계몽활동을 벌여 11월 21일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반대운동이 금지된 일방적인 개헌안 국민투표는 1,441만 714명이 투표해 91.5%에 이르는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확정된 '유신헌법'은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토록 하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여기서 뽑기로 하는 등 '국체의 변혁'에 가까울 정도의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통치체제의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제적 1인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신헌법'을 만든 것이다.

사실상 천황제나 다름없는 10월 유신의 후속작업인 간접선거가 이어졌다. 박정희는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에 단독출마,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유신체제를 가동시켰다. 박정희가 무력을 동원한 비상수단으로 체제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은 3선개헌에 이어 또 다시 개헌을 단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고전한 데다 야당에 의한 국회의 비판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이었다.

정당원이 배제된 가운데 대의원 2,359명이 전원이 표면적으로 무소속이었다. 선거 당일 1972년 12월 23일에 1명의 결석도 없이 전원 장충체육관에 모였고, 박정희는 2,357표로 당선되어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이자 자신의 삶에서 4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당시 충남 대전시 제1선거구 대의원이었던 송동헌은 훗날 증언을 통해 2표의 무효표 가운데 한명이 자신이었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당선된 후 12월 15일 경 당선자를 소집하여 대의원 리셉션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나와서 봉투에 백지를 넣어주며 용지에 한문과 한글로 주소, 성명을 써내라고 하였다. 이렇게 글씨를 미리 받아놓는 이유는 글씨체와 지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12월 23일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22일 대의원들은 각 도별로 여관에서 교육을 받고 잠을 잤다.

(중략) 기표소는 각 도별로 2개씩 있었고 명패함과 투표함이 있었다. 대의원 호수대로 이름을 불렀다. 선관위 여직원 둘이 하나는 명패를 주고 하나는 투표용지를 주었다. 투표용지는 우편엽서만한 용지였는데, 접지도 못하게 아주 뽀뽀한 용지였다. 용지의 전면에는 금박이로 '제8대 대통령 투표용지'라고 인쇄돼 있었고, 이면에는 '박정희' 이름을 쓰도록 흰 여백으로 되어 있었다. 반대 개념이 성립 안 되는 용지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목숨을 걸고 유신 독재 체제를 비꼬기 위해서 투표용지에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의'라고 써서 투표함에 넣고 투표장밖으로 나왔다. '정의'라고 쓴 것은 희는 늪에 빠져서 쓸데없는 역사의 폐물이 되지 말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나의 외침이었다.

제8대 대통령 선거 비화 《향토연구 제36집》, 충남향토연구회 에서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고려와 조선을 연 성수산 상이암, 두 번째 이야기 “상이암 경내에서”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성수산이란 이름에서 ‘성수’는 임금의 나이를 뜻한다. 임금이 오래살기를 비는 말인 ‘성수무강聖壽無疆’, 또는 ‘성수만세聖壽萬歲’ 등에서 볼 수 있는 단어다.

이곳 성수산에 자리를 펼친 상이암은 고려와 조선왕조를 연 왕건王建, 이성계李成桂와 관련이 깊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먼저 국사로 추앙된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와 마지막 국사로 남은 무학대사(無學大師, 1327~1405) 두 스님의 사연이 깃든 암자이기도 하다.

「상이암사적기上耳庵寺蹟記」에 따르면, 상이암은 신라 헌강왕 1년(875)에 도선국사가 처음 암자를 열고 ‘도선암道詵庵’이라 명명하였다. 고려 말에 이성계가 암자 이름을 상이암으로 고쳤다. 이때부터 산 이름도 성수산이 됐고, 마을 이름까지 성수리가 됐다고 한다.

그 후 1394년(태조3)에 각여선사覺如禪師가 중수하였으나, 조선 말기인 1894년(고종31)에 동학운동 때 불탄 것을 1909년(융희3)에 김대건金大建이 중건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의병대장 이석용李錫庸이 상이암을 근거지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여파로 일본군에 의해 암자가 불탔다. 1912년에 대원大圓스님이 중건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때 다시 불에 탔다. 1958년 당시 군수였던 양창현이 중건해서 오늘에 이른다.

임도삼거리에서 조금 오르다 보면, 길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왼쪽은 차량을 위해 개설한 도로이고, 오른쪽 길이 암자로 오르는 계단이다. 근래에 계단을 다시 조성했으니, 천년 암자를 향하는 계단치고 너무 새로워 어색하다. 사뭇 기계적으로 쌓아 고풍스런 맛이 사라졌다. 계단 옆으로 뻗어 내린 계곡 또한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낯선 모양새는 그렇다 쳐도 계단에 치여 자못 웅색한 꼴이다.

그러나 계곡 옆의 여의주봉은 역시 야무지고 장쾌한 맛으로 넘친다. 낙락장송들이 울창하게 자라면서 천년 암자의 위용을 넉넉히 전해 준다.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강인한 첫인상이다. 상이암의 얼굴 노릇을 해내는 이 여의주봉 앞에는 '어필각御筆閣'이 섰다.

경내로 들기 직전의 작은 다리 앞으로 두 개의 커다란 수조가 벌려 있다. 수조의 뒤쪽에 쓰인 글자를 살펴보니, 조선 말기에 황태윤의 시주로 만들어졌다. 이 수조는 아직도 사용 중이다.

경내의 손바닥만 한 마당 가운데에 편백나무 한 그루가 우뚝하다. 아래쪽이 하나로 이루어진 몸통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줄기가 여럿으로 나뉘었다. 이 편백나무가 상이암의 역사를 보여 준다. 아울러 아래쪽 산자락의 휴양림에 가득한 편백나무 숲과 일체감을 이루기도 한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편백나무를 마주하고 서 있는 건물은 무량수전이다. 오른쪽은 새로 지은 요사채로 말끔한 모습이다.



무량수전 | 어느 암자가 소란할까? 고려와 조선을 세우도록 한 상이암도 고요와 안한에 묻혀 있다.

무량수전은 1958년에 세운 인법당印法堂을 2002년에 고쳐 지은 것이다. 앞면 4칸, 옆면 3칸의 겹처마에 풍판을 댄 맞배지붕이다. 천장은 우물반자에 우물마루다. 편액은 무량수전으로 붙었고, 주련은 아예 없다. 내외부에 단청을 올렸다. 내부에 아미타내영도와 연화도, 신중벽화가 그려져 있다. 상이암이란 편액은 건물의 좌측면에 자리를 잡았다. 봉안된 존상은 유리구슬을 손에 든 채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있는 아미타불좌상이다. 좌우에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불로 모셔졌다.

선정인은 두 손바닥을 위로 해서 하나는 배꼽 앞에 놓고, 하나는 그 위에 겹치게 올린 다음,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댄 손 모양을 가리킨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있을 때 취한 수인手印으로, 결가부좌한 좌상에서만 보인다. 삼마지인三摩地印, 삼매인三昧印, 법계정인法界定印, 등지인等持印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수인은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여원인과 더불어 '근본 5인'에 속한다.

아미타불은 임금의 자리마저 버리고 출가, 성불한 법장비구法藏比丘가 전신前身이다. 법장비구는 세상에 비할 바 없는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사의 고통이 뿌리째 뽑혀진 불국토의 구현을 서원하였다. 그 서원은 48가지로 표현되는데, 종극에는극락정토로 요약된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신 무량수전이 상이암에 들어선 이유는 다름 아니다. 고려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왕건과 이성계라는 두 태조太祖에게 수많은 불자佛者들이 극락정토 곧 불국토의 실현을 서원하였기에, 드디어 무량수전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아미타불상 뒤로는 아미타후불탱화와 지장탱화 및 신중탱화가 배치되었다. 예불에 쓰이는 범종도 법당 한쪽에 보인다. 작아도 법도가 완비된 무량수전 안에 장엄한 부처님의 세상이 또 이렇게 열렸다.

숲 속의 새들은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떠가는 흰 구름 하나가 잠시 이곳을 돌아본다. 눈부시게 맑은 바람의 웃음이 소리 없이 허공을 맴돌기에, 편백나무의 잎사귀들은 일시에 손을 흔든다.

칠성각은 경내의 계단 옆에 자리를 잡았다. 정면 3칸에 측면 1칸으로, 겹처마의 팔작지붕을 올린 목조건물이다. 앞쪽에 두 그루의 편백나무가 호위병 역할을 하며 위풍당당하게 솟았다. 왼쪽으로 시멘트 포장로가 물길을 따라 이리저리 감돌며 사리탑을 향해 오른다.



칠성각 | 행여 탐진치의 때가 탈까 염려스러워 편백나무가 좌우에서 칠성각을 호위하는 중이다.

칠성각은 시멘트 기단 위에 원형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주심포 형식을 취하였다. 편액은 '칠성각'으로, 주련은 역시 없다. 내외에 단청을 올렸다. 내부에는 치성광여래 좌상과 지장보살상 및 16나한상이 모셔졌다. 그리고 칠성탱화를 중심으로 지장탱화, 독성탱화, 장수탱화 2기, 현왕탱화 등이 배치되었다.

전각 외부에는 윤판이 걸렸다. 내부에는 조선 말기에 명필로 이름 높았던 창암蒼巖이삼만李三晩선생이 남긴'칠성각'편액을 따로걸었다. 선생의 자는 윤원允遠, 본관은 전주다. 본래의 이름은 규환奎煥이었는데, 스스로 만학晩學,만교晩交, 만혼晩婚이라고 여겨 나중에'삼만'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선생은 전주 교동에서 출생했으나, 어렸을 때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의 공기골로 이주했다. 그리고 당대의 명필로 알려졌던 이광사李匡師의 글씨를 배웠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서예에만 치력해 중년 이후의 생활이 곤궁해졌다. 부귀공명에 뜻을 두지 않고 일생 동안 서예에 몸을 바친 것이다. 특히 그는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 자신의 글씨를 내다 팔지 않았다고 한다.

추사秋史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1840년 제주도로 귀양 갈 때, 전라도 관찰사 이목연에게 일부러 부탁해서 이삼만을 처음 만났다. 추사는 자신과 나란히 이름을 떨치는 이삼만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여 이삼만의 글씨를 청해 본 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는데, 추사가 쓴 비문에'중국에까지 알려져 중국인 제자도 수십 명이나 있었다.'고 전한다. 그의 서체는 물 흐르듯이 유연하기에,' 유수체流水體'라고 부른다. 그가 남긴'마천십연磨穿十硯 독진천호秃盡千毫'란 경구는 지금도 서예인들 사이에 아주 유명하다. 먹을 갈아 벼룻돌 열 개를 뚫어 버릴 만큼, 붓 천 자루를 닳아 없앨 만큼 열심히 쓰고 또 쓰면서 노력하라는 뜻이다.

산신각 입구에는 3기의 부도가 늘어섰다. 이 가운데 2기는 '혜월당慧月堂'과 '두곡당杜谷堂'이라고 음각되었다. 두곡당과 혜월당 부도는 본래 상이암 입구 300m 전방에 설치되었던 것인데, 2002년 9월에 도난의 우려가 있어 상이암 경내로 옮겼다.

왼쪽의 혜월당 부도는 팔작지붕의 형태로 멋을 부렸지만, 몸체에비해 지붕이 다소 커 보인다. 둥근 몸통도 위쪽이 더 불룩해서 안정감이나 균형미가 얼마간 떨어진다. 한가운데에 선 두곡당 부도는 종모양을 지녔다. 별다른 장식이 더해지지 않았지만, 세련된 생김새로 절제미가 뛰어나다. 특히 흘러내린 곡선이 탁월하게 멋스럽다.

맨 오른쪽의 부도는 이름을 잃었다. 형식과 구조로 보아 조선 중기 것으로 추정된다. 몸체나 덮개돌 위에 얹은 노반, 노발, 보개 등의수법이 뛰어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높다. 원래는 상이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또한 2002년 9월에 지금의 장소로 옮겨 왔다. 몸통은 당초문양으로 장식을 삼았다.

상이암 경내는 자못 어수선한 형국이다. 물길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구불구불 뱀처럼 내려왔기에, 이를 피하느라 부속 건물들이 제각각 편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 때문이다. 그 바람에 정갈하고도 단아해야 할 암자 특유의 분위기를 맛보기가 어렵다.

상이암의 주불전인 무량수전 앞에 서면, 이 법당만이 가까스로 자리다운 자리 하나를 꿰찔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다지 큰 자리는 아니다. 풍수지리에서 '석중혈石中穴'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리인데, 기세는 별로다. 왕건과 이성계 두 사람의 창업주를 낳은 명당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에 정진하기 좋은, 자그맣고 맑은 공부 터다.

상이암의 백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량수전과 마주한 '여의주봉'이다. 바로 여의주봉이 왕건과 이성계를 보위에 오르도록 만들었다. 여의주봉에 관한 언급은 뒤에서 자세하게 이어진다.



부도 | 이제 한곳에 모인 부도들이다. 모두 제각각 다른 형태를 지녔지만, 함께 마른 햇살을 쬐이 며 하루해를 보내는 동지가 되었다.

다음 주는고려와 조선을 연 <성수산 상이암> 세 번째 이야기 “환희담과 고려 태조 왕건”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